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 연구*

최윤정**

<차례>

1. 서론
2. 명고 서형수의 시작품과 문학관
 - 1) 시작품의 분포와 양상
 - 2) 자득(自得)을 중시한 문학관
3. 명고의 시문학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
 - 1) 명고(明阜)에서의 관조적 태도
 - 2) 자부와 자탄의 정서 공존
 - 3) 유불회통적(儒佛會通的) 사유(思惟)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명고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시문학을 고찰하였다. 명고는 자득(自得)과 개성을 중요시하며 실용적인 문학관을 지니면서도 고졸적인 학문 자세를 지녔던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명고의 시문학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명고(明阜)에서의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명고를 배경으로 지은 시에서는 명고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시하거나, 서형수의 진솔한 마음과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자부와 자탄의 정서가 공존하여 드러난다. 명고 서형수의 시작품에는 실리를 탐하지 않는 문인이자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을 자탄하는 정서가 나타난다. 셋째, 유불회통

* 이 논문은 2023년 5월 13일(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2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용인대학교 용옴대학 부교수

적(儒佛會通的) 사유(思惟)가 나타난다. 명고 서형수는 정치적 좌절로 인해 환로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불가적인 이념을 수용하였다. 유가(儒家)로 몸을 수양하고 불가(佛家)로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여러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명고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응하여 진솔하게 정서를 표현하였고, 시적 상황과 내용을 자주(自註)를 통해 섬세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를 창작하였다.

명고 시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당대 다양한 사상을 수용했던 소론계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박학(博學)적인 학풍을 추구했던 달성 서씨의 가학(家學)과도 일정 부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명고 서형수, 소론(少論),自得(自得), 자부, 자탄, 유불회통(儒佛會通), 자주(自註), 고종

1. 서론

본고에서는 명고(明皐)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시문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명고는 정조에게 인정을 받아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약하였고, 생전에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여 보다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명고는 소론 달성 서씨 가문 출신으로 서명응(徐命膺)의 차남이었으나, 후사가 없는 계부(季父) 서명성(徐命誠)에게로 출계(出系)하였다. 명고 서형수는 16세 때 신촌(新村)으로 이사하여 당시 이웃에 살던 노론 낙론계 산림 홍계능(洪啓能)과 집이 가까워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후에 정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¹⁾

1) 한민섭, 「명고 서형수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 『퇴계학연구』 20, 퇴계학연구소, 2006, 129~130쪽.

서형수는 35세 때인 1783년(정조7) 4월에 증광 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가감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부수찬이 되었고, 12월에 초계문신이 되었다. 명고가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 정조가 “서형수의 등제(登第)는 국가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근래 그 사람됨을 보니 매우 순수(純淑)하니 가상하게 여긴다.”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조의 신임으로 명고 서형수는 젊은 시절부터 부친 서명응, 형 서호수(徐浩修) 등과 함께 정조의 다양한 편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43세 때인 1791년(정조15) 6월에 성천 부사가 되었는데, 사적인 혐의 때문에 좌의정 채제공에게 부임 인사를 하지 않아 파직되었다. 48세 때인 1796년(정조20) 7월에 광주 목사가 되었다. 51세 때인 1799년(정조23) 7월에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가 되어 중국에 갔다. 57세 때인 1805년(순조5) 3월에 형조 참판이 되었고, 윤6월에 경기 관찰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명고의 마지막 관직이었다. 순조 5년(1805) 12월 27일에 노론 벽파로서 우의정이었던 김달순(金達淳)의 상소 사건의 배후조정자로 지목되어 명고는 57세에 경기 관찰사를 마지막으로 파직되었다.²⁾ 명고는 이듬해인 1806년 1월에 흥양현(興陽縣)에 정배되었다가 추자도(楸子島)로 이배되었다. 그리고 1823년 7월, 임피현(臨陂縣)에 이배되었다가, 76세 때인 1824년 11월 2일, 임피적사(臨陂謫舍)에서 사망하였다.³⁾

명고 서형수는 사도세자, 정조, 노론 시파와 벽파 등 당대 당쟁의 첨예한 요소들에 얽혀서 피할 수 없게 되어 20여 년 동안 유배지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다. 유배 기간 동안 명고의 생활은 기록이 없어서 잘 알

2) 김달순은 사도세자 사건에 연루되어 해를 끼쳤다고 지목된 인물인 박치원(朴致遠)과 윤재겸(尹在謙)을 표창하라는 상소를 올려 시파(時派)에 의해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는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明阜全集』〈明阜年譜〉 참조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과 번역본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 『國譯 明阜全集』 한국고전종합 DB(<https://www.itkc.or.kr/main.do>)를 활용하였음.)

수 없지만, 그 이전 시기의 명고의 생애와 그의 인식은 『명고전집(明臯全集)』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명고 서형수는 당대 청나라의 학술과 문풍을 좌우하고 있던 기운(紀昀, 1724~1805)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명고의 시는 김인산(金仁山)의 『염락풍아(濂洛風雅)』를 본받아 스스로 하나의 시격(詩格)을 이루었다. 그의 산문은 법도와 구사에 구양수(歐陽脩)의 풍도가 있으면서도 대지(大旨)는 이치에 뿌리를 두었다. 요컨대 정주(程朱)의 정종(正宗)을 잃지 않아 이치와 문채를 빈빈하게 갖추었다. 이는 문장의 자구나 조탁하는 자가 다다를 수 있는 경지도 아니요, 또한 남송 이래 방언과 어록을 모두 문장 속에 넣는 자가 미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⁴⁾

또한, 명고의 시문집을 정리하여 편찬한 조카 서유구는 “웅장하게 성대한 것은 그 기운이로다. 정연하게 법에 맞는 것은 그 법도로다. 유려하게 문장을 구사한 것은 그 기교로다. 기운이 펼쳐져 있으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법도에 꼭 맞으면서도 속박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이 드러나면서도 화려하지 않으니, (명고) 선생의 시문을 읽어서 선생의 말을 징험하게 되었구나.”⁵⁾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고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단독 연구는 비교적 영성한 편이다. 초기 연구는 한민섭이 진행하였는데, 그는 명고의 문학 세계를 살펴면서 초계문신의 자공심 괴력 및 정조의 학문 진작에의 협찬(協贊), 고증적 학문자세를 드러낸 시문(詩文)을 특징으로 들었다.⁶⁾ 이후 김영주는 조선 후기 소론계의 문학론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서형수 문학론

4) 『明臯全集』〈明臯文集序〉, “詩則規撫金仁山濂洛風雅 自成一格 其文則揖讓俯仰 有歐陽子之風度 而大旨根柢理 要不失洛閩之正宗 彬彬乎質有其文 是非雕章繪句者所能 亦非南宋以來方言俚語皆可入文者所能也.”

5) 『明臯全集』〈明臯始有集序〉, “熊熊爾勃窳者 其氣乎 井井爾規度者 異法乎 臆臆爾摛藻者 異巧乎 舒而不肆 按而不柅 遲而不治 讀先生之文而徵先生之言.”

6) 한민섭(2006), 앞의 논문.

의 특징을 ‘광괴(光怪)와 청기론(淸氣論)’으로 제시하였다.⁷⁾ 그리고, 윤선영은 명고 서형수의 『시고변(詩故辨)』을 연구하였는데, 성호에서 다산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실학적 경세론의 중간 지점에 명고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⁸⁾ 그리고, 이승현은 『명고전집(明皇全集)』 시고(詩稿)를 통해 본 원텍스트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⁹⁾ 김대중은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계급성과 문학작품의 관련성에 대한 시론(試論)으로 서형수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¹⁰⁾

선행 연구를 통해 명고 서형수의 문학 중에 문학론, 관각시나 산문 작품 등의 부분적인 특징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본격적인 작품론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 연구를 진행하여 그의 문학 세계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명고의 시 작품 중에서도 개인적인 서정을 드러낸 작품을 주로 선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초계문신으로서의 면모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에 더하여, 당대 정치적 부침이 심했던 학자이자 문인으로서의 명고 서형수의 일면을 살피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먼저 명고의 시작품의 대체적인 양상과 문학관을 살펴보고, 시작품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7) 김영주, 『조선후기 문학론 연구』, 이회, 2009, 250~257쪽.

8) 윤선영, 「명고 서형수의 詩故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이승현, 「서형수의 『明皇全集』 詩稿를 통해 본 원텍스트 훼손」, 『고전번역연구』 7, 한국고전번역학회, 2016.

10) 김대중, 「서형수-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133, 진단학회, 2019.

2. 명고 서형수의 시작품과 문학관

1) 시작품의 분포와 양상

명고의 시작품은 『명고전집』 권1~2에 총 134제(題)가 실려 있다. 목차에 제목만 남아 있고 해당 작품 내용은 절취되어 없는 것이 세 작품이 있어서, 실제로 내용이 수록된 작품은 총 131제(題)이다.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우연히 떨어져 나간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시작품은 대체로 창작 순서대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를 형식과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형식별 분류〉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칠언배율	오언고시	칠언고시	육언시	기타
3	26	32	56	2	6	2	1	3

〈표2: 내용별 분류〉

관각시 (응제시 포함)	서경시	서정시	교유시 (차운, 화운시 포함)	만장(輓章)	기타
24	15	40	43	3	6

위 도표를 통해 명고는 형식상 칠언절구와 칠언율시 작품을 많이 지었고, 내용상 서정시와 교유시를 많이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명고 서형수가 10대 시기에 지은 작품은 권1의 앞쪽에 실려 있는 〈북벽(北壁)〉, 〈도담(島潭)〉, 〈성천의 시기 일지홍에게[贈成川詩妓一枝紅]〉 세 수 정도가 남아 있다. 20대 이후부터는 좀 더 다양한 작품을 지었고, 문예적인 감각과 사상적인 지향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권1의 〈중국의 세 군자를 생각하며[憶中州三君子]〉라는 작품에서는 중국의 축덕린(祝德麟), 반정균(潘庭筠), 이조원(李調元)을 그리는 칠언절구를 지었다. 이 외에도

『명고전집』 전반에 걸쳐 원굉도(袁宏道), 조환광(趙宦光), 전겸익(錢謙益), 모기령(毛奇齡), 고염무(顧炎武), 이광지(李光地) 등 명청 학자들의 저술이 자주 인용된다. 그리고 명고의 시작품에는 시 내용에 대한 전고(典故)와 해설을 자주(自註)를 통해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명물훈고(名物訓誥)의 고증학적 방법론을 원용하는 학문 자세와 일정 부분 연관된다.

관각시나 응제시는 명고가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동하거나, 관직에 나아갔을 때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지은 작품에는 초계문신으로서의 자긍심을 피력하고, 정조의 치세(治世)와 인재 양성책에 부응하는 주제를 표현한 것이 많다.¹¹⁾

한편, 서형수는 생부인 서명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명물학(名物學)에 정통하였고, 사행을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북학파의 학자들이나 당대의 저명 학자들과 당파를 초월한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¹²⁾ 그가 교유한 인물은 유금(柳琴), 성대중(成大中),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이희경(李喜經), 심진현(沈晉賢) 등과 같은 당대 학자들이다. 이들과 교유한 자취를 살필 수 있는 시작품으로는 증별시(贈別詩)나 차운시(次韻詩), 사신(使臣)을 떠날 때 준 송시(送詩) 등이 남아 있다. 권1에 〈연경으로 가는 윤암 이희경을 보내며[送李喜經綸庵之燕]〉, 〈심양으로 가는 유득공 혜풍을 보내며 쓴 시[送柳得恭惠風之瀋陽]〉 등과 같은 작품이 그에 해당한다.

또한, 서형수는 승려 최현(瑠絢) 등을 만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불교를 사상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권1의 〈산속 집에서 향불을 피우고 최현 스님과 함께 불경을 강론하

11) 한민섭(2006), 앞의 논문, 141~146쪽. (명고의 관각시와 관련된 연구는 이 논문에서 이미 진행되어서 본고에서는 개인적인 서정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김영주(2009), 앞의 책, 201쪽.

며[山齋燒香 與絢上人演佛乘]], 권2의 <최현 스님이 내방하였기에 달 아래서 운을 뽑아[絢上人來訪 月下拈韻]> 등이 있다.

명고의 시문학은 전체 작품을 기준으로 할 때 분량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산문 작품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섬세한 정서와 인식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명고의 개인적인 정서와 인식을 표현한 작품을 위주로 선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득(自得)을 중시한 문학관

명고 서형수는 개성이 없는 명대(明代)의 의고적(擬古的) 문풍을 비판하고, 자득(自得)과 개성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의고주의의 대안으로 당송팔가(唐宋八家)의 글을 높이 평가하였다. 명고는 법도에 얽매이는 폐단과 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폐단 양극단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이 두 가지 모두 당송팔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였다. 당송팔가의 정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작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뜻이다. 또한, 서형수는 ‘문장에는 고급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시의성(時宜性)을 강조한 것이다. 당대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당대의 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서형수는 ‘문장은 공물(公物)이다’는 견해와 함께 ‘문장은 세교(世教)와 관계 있다’는 것을 중시하였다. 즉, 문장은 공물로서 세상 교화에 기능해야 한다는 결론은 문장의 실용성을 강조한 정조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⁴⁾

또한, 명고 서형수가 유득공에게 준 <『가상루시집』 서문>에서 시의 본의를 정치의 득실과 결부하여 이야기하였다. 서형수에 의하면 훌륭한 시는 문예미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용이 인간의 현실적

13) 김대중(2019), 앞의 논문, 127쪽.

14) 김영주(2009), 앞의 책, 160쪽.

삶과 맞닿아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서형수는 이렇게 『시경』에서 두보로 이어진 시사(詩史)로서의 시를 진시(眞詩)로 파악하며, 한시사(漢詩史)에서 이런 시는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적막을 깨고 시의 본래적 의미를 부활시킨 것이 바로 유득공의 시라고 높이 평가하였다.¹⁵⁾

다음 시작품에도 명고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명고의 종제(從弟)인 경박(景博) 서노수(徐潞修)가 명고의 친형인 서유본, 조카인 서유구와 고문회(古文會)를 만들어 작품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명고의 문장관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六經無文法 육경에 문법 없고
 三代無文人 삼대 때 문인 없었으니
 文人與文法 문인과 문법은
 知皆後世言 모두 후대에 생긴 말임을 알겠어라

협운(叶韻)이다.

西京斯爲盛 서경에 문장이 크게 흥성하여
 虛車紛飾輪 빈 수레 요란스레 장식하니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에 “수레를 장식하기만 하고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괜한 장식인 것인데 허물며 빈 수레에 있어서이겠는가.”라고 하였다.

所以揚子雲 이 때문에 양자운은
 笑他繡鞶巾⁸⁾ 허리띠와 수건에 수놓는 이들 비웃었네

양자(揚子 양웅(揚雄))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학자들은 화려하게 꾸미기만 할 뿐 아니라 허리띠와 수건에까지도 수를 놓는다.”라고 하였다.

雖然古之道 비록 그러하나 옛 법도는

15) 『明阜全集』〈작품해제〉 참조.

自此有專門 이로부터 전문이 생기니
 협운이다.
 駢儷降六朝 변려문은 육조 시대 내려와
 官樣生一倫 관양이 한 무리 형성했네
 옛날에는 관각체(館閣體)를 관양이라 불렀다.
 於焉分古今 여기에서 고금이 나누어지니
 學者岐筏津 학자들이 나룻배를 달리 탔네
 間氣諒爲傑 간기 타고난 자 참으로 호걸 되니
 眞脈不終湮¹⁶ 문장의 진맥 끝내 막히지 않았어라

倡起八代衰 팔대의 쇠락함 창도하여 일으키니
 韓子是先民 한자가 바로 선민이었네
 匠心何獨苦 장심은 어찌면 유독 고달팠던가
 體裁務去陳²⁰ 체재는 진부함 없애는 데 힘썼네

한자(韓子 한유(韓愈))가 말하기를 “문장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부한 말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壇墀日誦誥 문단은 나날이 불어났네
 贗鼎誇商彝 가짜 솥을 상나라 제기라 떠벌리고
 糞丸擬隋珍 똥덩어리를 수나라 보물에 견주니
 瓦釜脚折鏞 질솥과 다리 부러진 노구솥들
 十指亦屈伸 열 손가락으로 또한 세고 세네
 何曾見一人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던가
 尙志嘍嘍然 담대하게 뜻이 고상한 이를
 협운이다.
 奇者還棘喉 기굴한 자는 도리어 입이 꺼끌꺼끌
 才者但膏唇 재주 있는 자는 입만 번지르르

豪僕反主翁 사나운 노복이 주인 저버리고서
 悵望靡所因 멍하니 얼빠진 채 의지할 바를 모르네

고문(古文)을 배우는 사람은 비록 고인(古人)과 대등한 경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손쯤은 되어야지 노복처럼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비유하자면 사나운 노복이 주인을 잃으면 멍하니 얼빠진 채 갈 곳을 모르지만, 자손은 비록 오랜 세대가 지나도 반드시 그 조상을 닮은 부분이 있는 것과 같다. 이상의 말은 명유(明儒)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矧伊偏壤俗 더군다나 이 구석진 땅 습속은
 竊竊多畦畛 자잘하여 제한되는 것 많다네
 席上皆腐儒 자리 위는 모두 썩은 선비요
 柱下求同塵⁴⁶ 주하에서는 먼지나 같이 뒤집어쓰려 하누나

『사기(史記)』에 “유지는 자리 위의 보배가 있다.”라고 하였다. 주하는 한(漢)나라 때 사관(史館)의 명칭이다.

(중략)

文章然有道 그러나 문장에는 도가 있나니
 開闢貴渾天 혼연히 천기(天機)대로 위음이 귀하다네
 협운이다.
 慎毋煩攬採 삼가 여기저기서 뽑아오려고도 말고
 慎毋巧縫紉 삼가 이리저리 다듬으려고도 말아야 하네
 雲滂要必雨 구름이 자욱하면 반드시 비가 오고
 陽透自成春 양기가 뚫고 나오면 절로 봄 되는 법
 無意於爲文 작위적인 마음 버리고 글 지어야
 其文乃彬彬⁸⁰ 그 글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라네¹⁶⁾

이 시는 총 80구의 40운 협운(叶韻)으로 쓰여진 오언고시 작품이다.¹⁷⁾

16) 『明臯全集』 권2 〈聞景博與有本有樂作古文會 每五日必得一篇 喜而不寐〉.

17) 이 작품은 평성 ‘진(眞)’ 운의 40운 일운도저격 오언고시로 제4구(言)·제10구(門)·제22구(存)·제52구(樊)는 평성 ‘원(元)’ 운, 제38구(然)·제70구(前)·제74구(天)

전반적인 문장의 역사를 제시하고, 고문(古文)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와 명고가 추구하는 문장관을 총망라하여 담고 있다. 1~8구에서는 초기에는 문법이나 문인이 없었으나 후대에 생겨난 말이고, 서한(西漢:전한) 시대의 수도인 장안(長安)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문학이 번성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자와 양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장이 본질을 잃고, 기교와 수사가 발달한 것을 비판하였다.

9~16구에서는 문장가들의 출현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문학과 방법도가 생겨나고 변려문 등의 관각체 문장이 생겨난 것을 제시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문체를 선택하고, 영웅호걸들이 문장의 진맥(眞脈)을 이어간 것을 표현하였다. 17~20구에서는 화려한 변려문을 극복하고 고문(古文) 운동을 창도한 한유를 칭송하였다. 한유가 새로 고문 운동을 창도하면서 고심하여 글을 지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주(自註)를 통해 한유가 진부한 말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을 강조하였다.

32~46구에서는 부족한 실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문인들을 비판하였다. 가짜 술과 똥덩어리를 값진 보물로 착각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기교한 문장을 쓰는 이들의 작품은 난삽하기만 하고 재주 있는 자의 작품은 말솜씨만 요란하다고 비판하였다. 썩은 선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먼지로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73~80구에서는 작위를 배제한 ‘천기(天機)’를 강조하였다. 이리저리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진정한 문학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작위적인 마음을 버리고 글을 짓는 태도는自得(自得)을 중시한 명고의 문학관과도 상통한다.

는 평성 ‘선(先)’ 운, 제58구(聞)·제60구(分)는 평성 ‘문(文)’ 운, 제66구(肯)는 축성 ‘형(迺)’ 운으로 협운(叶韻)하였다. (작품해제 참조)

3. 명고의 시문학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

1) 명고(明臯)에서의 관조적 태도

‘명고(明臯)’는 명고 서형수가 양부(養父) 서명성(徐命誠, 1731~1750)의 무덤을 이장한 장단 진북면(津北面) 광명리의 이칭이다. 명고 서형수가 1779년(31세)에 이장을 하고 나서 그곳에 명고정거(明臯靜居)를 짓고 동명(洞名)을 광명동에서 명고로 바꾸었다.¹⁸⁾ 명고는 서형수에게 양친(養親)의 추모의 공간이자 개인적인 사색의 장소였고, 어지러운 환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배경으로 지은 시에서는 명고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시하거나, 서형수의 진솔한 마음과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먼저, 명고정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낸 〈명고팔영(明臯八詠)〉을 살펴보겠다. 이 작품은 시의 편차(編次)와 내용으로 보아 서형수가 명고정거를 조성한 1785~1786년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팔경시(八景詩)의 전통을 따라 8수로 이루어져 있다. ‘가을밤 석량에서 게를 잡는 고기잡이불[石梁漁火]’, ‘명고의 남쪽에 자리한 마을 대리의 밥 짓는 연기[碓里炊烟]’, ‘명고정사 앞 방당의 연꽃 향기[小塘荷香]’, ‘긴 독에 늘어선 버드나무 그늘[長堤柳陰]’, ‘곡우 뒤의 토란 심는 모습[雨圃種芋]’, ‘가을 무논의 벼 수확하는 모습[水田獲稻]’, ‘상수리나무 동산에서 도토리 줍기[榭園拾子]’, ‘정원 옷나무 숲의 단풍[漆陌賞葉]’ 등의 여덟 풍경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시는 각 수(首)마다 시적 정황을 제시해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중 몇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明臯全集』 권8 〈明臯記〉, 〈明臯年譜〉 己亥條.

(전략)

〈三首〉

작은 연못의 연꽃 향기[小塘荷香]

명고가 감싸 안아 골짜기를 만드는데, 골짜기는 폭이 2, 300보가량 되며 길이는 그 배가 된다. 골짜기의 왼편에는 수십 칸의 정사(精舍)가 있고, 그 앞으로는 10여 묘의 방당(方塘)이 있다. 여기에 연꽃을 그득히 심어놓았기에 여름이 되어 연꽃이 피면 맑은 향기가 사람에게 끼쳐온다. 이 때문에 ‘작은 연못의 연꽃 향기[小塘荷香]’라고 한 것이다.

田田綠葉漸成堆 옹기종기 푸른 연잎들 점점 무성해지더니
艷艷紅華半露腮 곱디고운 붉은 꽃이 반쯤 얼굴 내밀었네
徒倚同余樓上久 동여루 위에 한참 동안 기대어 있노라니
微風不斷暗香來 미풍에 씩 없이 그윽한 향기 실려오네

(중략)

〈八首〉

옷나무 두둑에서 단풍 감상하기[漆陌賞葉]

명고정사 앞에 터를 쳐서 트랙을 만들었다. 트랙 두둑에는 옷나무 수십 그루를 뽕뽕이 심었다. 매년 가을이 깊어 잎이 물들면 색깔이 마치 술을 마시고 취한 듯 물들어 붉은빛이 현함을 비추어 풍광이 사람들에게 감상시켜 줄 만하였다. 이 때문에 ‘옷나무 두둑에서 단풍 감상하기[漆陌賞葉]’라고 한 것이다.

數間蝸舍足幽棲 물러나 살기에 그만인 몇 칸 오두막
虎落西邊漆樹齊 울타리 서편 옷나무 줄지어 서 있네
一幅丹霞霜早日 첫서리 내린 뒤 노을처럼 질붉을 제
杖藜疑是步花谿 청려장 짚고 나서면 꽃동산 걷는 듯¹⁹⁾

19) 『明阜全集』 권1 〈明阜八詠〉.

〈三首〉에서는 여름날 명고의 동여루(同余樓) 연못에 핀 연꽃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동여(同余)’라는 이름은 부친 서명응이 지어주었다. 북송의 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연꽃을 군자에 비겨 그의 집 방당에 가득 심어놓고 지은 글 〈애련설(愛蓮說)〉에 “아! 국화를 사랑한 이는 도감 이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니와 연꽃을 사랑하는 이는 나와 같을 자가 그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명고가 연꽃을 좋아하여 방당에 가득 심어놓았으므로 서명응이 여기에서 의미를 취하여 ‘동여루’라고 붙여주었다고 한다.²⁰⁾

시의 1~2구에서는 봄에서 여름 사이에 연잎이 점차 무성해지다가 마침내 고운 꽃이 피어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1구의 ‘전전녹엽점성퇴(田田綠葉漸成堆)’라는 구절은 〈채련곡(採蓮曲)〉 또는 〈강남곡(江南曲)〉이라 불리는 한대(漢代)의 악부곡에 “강남은 연을 취할 만하여라, 연잎이 어이 그리 웅기종기 떠 있고.[江南可採蓮 蓮葉何田田]”라고 노래한 것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3~4구에서는 동여루(同余樓)에서 정경을 완상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잔잔한 바람에 섬 없이 실려오는 연꽃의 향기를 후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八首〉에서는 명고정사 앞에 만든 옷나무숲의 단풍을 읊었다. 1~2구에서는 명고정사 뜰에 심은 옷나무숲의 모습을 읊었다. 속세에서 물러나 ‘유서(幽棲)’에 머물러 지내는 서형수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3~4구에서는 가을날 질게 단풍 든 옷나무숲을 한가로이 거니는 정취를 읊었다. 붉은 노을처럼 질붉은 단풍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되는 회화적인 작품이다. 이와 같이 〈명고팔영(明阜八詠)〉은 서형수가 명고에서 계절에 따라 경험한 자연 정취를 제시하면서 이를 관조적으로 완상하는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20) 『保晚齋集』 권8 〈同余樓記〉, “明阜之陽 有樓突兀臨于沼 盛芙蓉沼中 以侈觀主 爲其翁將老而起也 旣成 請名于翁 翁錫以同余 且爲詩 使稱諸樓 其詩曰 樓名同余.”

다음은 18수 연작으로 지은 <명고잡영(明臯雜詠)>을 살펴보겠다. 이 작품은 본래 총 20수였으나, 교정고에서 본래의 제11수와 제19수를 산삭하면서 총 18수로 변경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명고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정경과 서형수가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서형수는 44세 때인 1792년 6월에 실직(實職)이 없는 문관들에게 주는 체아직(遞兒職)인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고, 이후 1796년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제수될 때까지 장단(長湍)의 명고정사에 은거하였다.²¹⁾ 이 작품은 그 무렵에 서형수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중 몇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其一>

終朝毛雨細無聲 아침 내내 가랑비 소리 없이 보슬보슬
 隔樹頻聽布穀鳴 숲 너머 연신 들리나니 뻐꾸기 울음이라
 香麴醞醕荷出沼 향긋한 술 익어가고 연못엔 연꽃 솟으니
 碧筩何必待三庚 벽통을 구태여 삼경까지 기다릴 것 있으랴

위(魏)나라 정시(正始 240~249) 연간에 정각(鄭愨) 공이 삼복 무렵 사군림(使君林)에서 피서(避暑)하며 큰 연잎에다가 술을 담고 비너로 잎을 찢어 연잎자루의 구멍과 통하게 한 다음 줄기의 윗부분을 구부려서 마치 코끼리 코처럼 굴곡지게 하여 돌려가며 술을 마셨다. 이것을 ‘벽통’이라 이름하였는데, 역하(歷下) 사람들이 모두 따라 하였다.

(중략)

<其八>

欲息風波須奉身 풍파 그치고자 할진댄 조정에서 물러나야 하니
 歸山以後更無嗔 산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비방 없구나
 休言僻里誰從我 벽촌에서 누가 날 따를까 걱정 말지니

21) <明臯年譜> 壬子條 참조

十室猶多好事人 열 집 사는 동네에도 호사가가 많다네

『한서(漢書)』〈양웅전(揚雄傳)〉의 찬(贊)에 “때때로 호사가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양웅에게 와서 배웠다.”라고 하였다.

(중략)

〈其十〉

山容水色鴨頭靑 산이며 강물은 오리 머리처럼 푸르고
 一雨前宵物物醒 전날 밤 내린 비에 온갖 사물 소생하네
 惜去迎來人便老 석거영래 하는 중에 사람 곧 늙어지니
 休將得失較餘齡 남은 나이 득실일랑 따지지 말아야지²²⁾

〈其一〉에서는 명고정사 주변의 한가로운 풍경과 서형수의 진솔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1~2구에서는 한여름에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정취와 수풀 너머에서 들리는 청량한 뿔꾸기 소리가 시청각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3구에서는 향긋한 술 익는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과 연못에 연꽃이 피어나는 시각적 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구에서는 ‘벽통(碧筒)’의 유래를 자주(自註)를 통해 제시하여 시적 정황을 좀 더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경(三庚)’은 1년 중 가장 더운 한여름의 세 번의 경일(庚日)로 삼복(三伏)과 같은 말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술을 마시며 여름날의 흥취를 즐기고 싶은 심회를 표현하였다.

〈其八〉에서는 서형수가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심정을 제시하였다. 1~2구에서 서형수는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시기를 언급하며, 명고에 돌아온 후에는 반대파의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3~4구에서는 궁벽한 곳에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이들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호사인(好事人)’은 자주(自註)에서 밝혔듯이 단순히 일을 벌이기

22) 『明阜全集』 권2 〈明阜雜詠〉.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흥미를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其十〉에서 서형수는 명고 주변의 풍경을 완상하며 인생 전반을 관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구에서 서형수는 이백(李白)의 〈양양가(襄陽歌)〉에서 “멀리 한수 바라보니 오리 머리처럼 푸르러[遙看漢水鴨頭綠]”라는 구절을 용사(用事)하여 명고 산천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2구에서는 밤새 내린 비에 한층 푸르러진 주변 풍광을 완상하고 있다. 3~4구에서는 가는 세월을 보내고 오는 세월을 맞이한다는 뜻의 ‘석거영래(惜去迎來)’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와 삶의 순리를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형수는 어지러운 정계를 떠나 명고정사에 은거하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관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자부와 자탄의 정서 공존

명고 서형수의 시작품에는 실리를 탐하지 않는 문인이자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을 자탄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감정이 따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연작시 등에서는 이중적인 정서가 공존하며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其一〉

名心久識誤人生 공명심이 인생 망침 안 것도 오래지만
窮老疲精底事成 늙고 쇠한 정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랴
晚覺如今無賴爾 만년 되어 깨닫네 이젠 어쩔 수 없음
會須教子業農耕 자식이나 가르치며 농사예나 힘써야지

(중략)

〈其三〉

緯史經經到半生 사서(史書) 경서(經書) 섭렵한 지 반평생이 되건만
一篇詩故苦難成 『시고변(詩故辨)』 한 편을 완성하기 어려웠네

내가 모장(毛萇)·정현(鄭玄)·주희(朱熹) 등 여러 학자가 풀이한 『시경』 ‘각 편의 요
지[篇旨]’를 취합하여 『시고변』이라고 이름하였다.

工雖作輟才緣下 작업도 하다 말다 하긴 했지만 재주가 낮아서인데
似此人猶事舌耕 이런 사람이 그래도 설경에 종사하구나

가규(賈逵)가 경서의 문장을 입으로 외어 사람들을 가르치자 배우는 이들이 바친 곡식
이 쌓여 창고에 가득하였다. 사람들이 이를 두고 가규가 근력으로 농사지어 얻은 것이
아니라 하고 마침내 ‘설경(舌耕)’이라고 하였다.

〈其四〉

能如襪線愧吾生 재주라곤 터진 버선 솔기의 실밥과 같으니 부끄럽구나 내
인생이여

옛말에 “한팔좌(韓八座)의 기에는 터진 버선 솔기의 실밥과 같아서 한 가닥도 긴 것만
가지도 장점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기예가 모두 대충 섭렵한 것이지 충실하
게 터득한 것은 없다는 말이다.

不愈無成號有成 성취가 있다지만 없느니만 못하네
覆瓿擲籬多少卷 장독이나 덮다가 울 가에 던져질 몇 권의 책들은
儒家裨販即備耕 유가 글귀 모은 품이 샴품팔이 밭일을 한 것 같구나

〈其四〉

憂患歸來老此生 우환 겪고 돌아오니 늙어 버린 내 인생
殘年活計問何成 남은 인생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꼬
水田足稻山饒蕨 논엔 벼가 풍족하고 산엔 고사리 풍성하니
吾臥吾廬課佃耕 내 오두막에 편히 살며 소작이나 부치리²³⁾

23) 『明阜全集』 권1 〈晩悟〉.

이 작품은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 서형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정계에서 물러났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 제목 원주의 ‘四首’는 교정고 가필사항이다. 이 시는 본디 5수로 지어졌으나, 교정고에서 원래의 넷째 수를 삭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해보기 위해 같이 제시하였다.

〈其一〉에서는 헛된 공명심(功名心)이 인생을 그르치게 한다는 것과, 쇠한 몸으로 특별히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자식 교육과 농사에 힘쓰는 일만이 남았음을 자각하는 내용이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 힘든 당대 상황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其三〉에서는 서형수가 오랜 기간 학문에 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취가 없는 것을 『시고변(詩故辨)』의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자주(自註)에서 서술했듯이 『시고변』은 여러 학자가 풀이한 『시경』 ‘각 편의 요지[篇旨]’를 취합한 후, 서형수가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 편찬한 해설서이다. 자신의 부족한 재주 때문에 계획했던 책을 빨리 편찬하지 못 했고, 지금도 그나마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강학하며 겨우 ‘설경(舌耕)’을 꾸려가고 있음을 자조 섞인 어조로 표현하였다.

먼저 제시된 〈其四〉는 교정고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작품으로, 수정한 다음 두 번째 〈其四〉 작품과 비교하여 보면 서형수의 정서를 좀 더 세심하게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쓴 〈其四〉에서 서형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재주를 한팔좌(韓八座)의 일을 원용하며 제시하고 있다. 한팔좌는 오대 때 문장과 거문고·바둑·글씨·산수·활쏘기 등의 기예로 전촉(前蜀)의 후주(後主)인 왕연(王衍)의 총애를 받았던 한소(韓昭)로 이태하(李台暉)가 그를 비판한 바 있다.²⁴⁾ 서형수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재주와 성취가 부족함

24) 『北夢瑣言』 권5 (작품 해제 참조).

을 제시하였다. 유가(儒家)의 여러 가지 전적(典籍)을 섭렵하여 글귀를 따
다 모은 저작[裨販]도 ‘삿품팔이 밭일[備耕]’에 불과하다고 자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정한 〈其四〉 작품은 〈其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며
통일성을 지닌다. 우환을 겪고 만년에 귀향하여 여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
아가겠다는 내용이다. 수정 전 작품에 비해서 다소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
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
와 자탄이 혼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추확(秋穫)〉이라는 작품에서도 자부와 자탄이 뒤섞인 정서
를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가을걷이 시기에 지은 것이다. 이
시는 앞 수의 끝구가 다음 수의 첫 구와 같은 수미음(首尾吟: 첫 구와 끝구
를 일치시킨 시)의 형식을 연작시에 적용하여 각 수가 서로 고리처럼 맞물
려 순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략)

〈其二〉

張公大笑我何尤 장공도 크게 웃고 말았으니 내 어찌 머슴을 질책하랴만
奈此生涯誰適謀 어찌할까 이내 생계 누구와 도모하나
康濟一身知不易 내 한 몸 건사함도 쉽지 않음을 알겠으니
死題神道仲明儔 나 죽거든 무덤가에 ‘중명의 짝’이라고 써주기를

명나라 유자 이덕원(李德遠)이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죽거든 무덤에 ‘가난한 선
비 이중명(李仲明)의 무덤’이라고만 쓰거라.”라고 하였다.

〈其三〉

死題神道仲明儔 나 죽거든 무덤가에 ‘중명의 짝’이라고 써주기를
貧士當今更有嘯 가난한 선비가 요즘 세상에 짝할 사람 또 있으랴
貧固士常貧士少 가난은 선비의 일상인데 가난한 선비가 드무니

『열자(列子)』에 영계기(榮啓期)가 “가난은 선비의 일상이요, 죽음은 인생의 종착점이

다.”라고 말한 일이 보인다.

眞貧眞士卽名流 진정으로 가난한 참된 선비 그가 곧 명류이네

〈其四〉

眞貧眞士卽名流 진정으로 가난한 참 선비 그가 곧 명류이니

非曰能之志欲求 내 능히 그렇다곤 못해도 지향하는 바이네

芻豢金貂多愧色 고기 먹는 고관들 부끄러운 기색 많으니

右軍誓墓有前修 저 옛날 왕 우군(王右軍)은 무덤 앞에 맹세했네

왕희지(王羲之)가 병을 구실로 직임을 버리고 고을을 떠난 뒤에 부모의 무덤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앞으로 영화를 탐하여 구차히 벼슬에 나간다면 저는 부모를 무시는 놈으로 자식도 아닐 것입니다…진심으로 맹세하는 저의 참뜻은 맑은 해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其五〉

右軍誓墓有前修 저 옛날 왕 우군은 무덤 앞에 맹세했거니와

何況時情任去留 허물며 떠나고 머무는 걸 제 뜻에 맡겨두는 세상임에라

贏得閑身無外事 한가로운 몸이 되어 바깥일이 없고 보니

好將餘日簡編抽 남는 날에 서책을 뽑아보기 좋아라²⁵⁾

이 작품에서는 가난한 농부와 선비로서의 삶에 대한 자탄과 자부심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락된 〈其一〉에서는 흥년이 든 것도 아닌데 예상보다 수확량이 적은 현실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를 머슴에게 물어보니, 엉뚱하게도 참새와 쥐가 축냈다는 변명을 듣게 되었다. 다음 〈其二〉에서는 서형수가 머슴을 질책하지 않고 수궁했지만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었다. 3~4구 내용은 자주(自註)에서 서술했듯이 명나라 유자 이덕원(李德遠)이 아들에게 당부한 말을 인용하였다. 이 글은 전겸익이 문인 이춘봉(李春逢)의 아버지를 위해 써준 것으로, ‘중명(仲明)’이 이름이

25) 『明阜全集』 권2 〈秋穫〉.

고 ‘덕원(德遠)’은 자이다. 전점익은 이증명의 이와 같은 당부에 대해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없다.[貧而無怨]”는 공자의 말에는 어긋나지만, 높은 재능과 큰 뜻을 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원망이므로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하였다.²⁶⁾ 서형수는 ‘증명의 짝’이라는 용어를 내세워서 자신의 가난에 대해 자부와 자탄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其三〉에서는 가난한 선비가 어울릴 사람이 없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참된 선비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가난한 선비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제대로 된 선비가 없는 당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자주(自註)에서 『열자(列子)』 〈천서(天瑞)〉의 내용에 영계기(榮啓期)가 ‘가난은 선비의 일상이요’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마지막 구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참된 선비가 곧 명류(名流)’라고 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其四〉에서는 서형수가 보다 직접적으로 ‘가난한 참 선비[眞貧眞士]’라는 자신의 삶의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실리를 택하는 벼슬아치들이 많은 것이 당대 상황이었다. 마지막 구에서 서형수는 우군장군(右軍將軍)을 지낸 왕희지(王羲之)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왕희지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왕술(王述)의 후임으로 회계군(會稽郡) 내사(內史)가 되었을 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직하였다.²⁷⁾ 구차하게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던 왕희지의 태도를 서형수도 수용한 것이다.

〈其五〉에서는 구차하게 벼슬에 연연하지 않아서 오히려 독서할 수 있는 한가로움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떠나고 머무는 것을 제 뜻에 맡겨두니 자신이 한가롭게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서형수는 수확이 적은 현실적 어려움을 소재로 이 작품을 썼지만, 자탄과

26) 『初學集』 권66 〈이덕원의 묘표[李德遠墓表]〉 (작품 해제 참조).

27) 『晉書』 권80 〈王羲之列傳〉 (작품 해제 참조).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내다가 마침내 가난한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3) 유불회통적(儒佛會通的) 사유(思惟)

명고는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불가 서적을 탐독하고 불교적 사유에 침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좌절로 인해 환로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에 해당한다.

忘言忘世又忘年	말을 잊고 세상 잊고 또 나이마저 잊어
強學西方入定禪	애써 불가에서 선정에 드는 법 배웠네
心似冷灰噓不起	마음은 식은 재와 같아 불어도 살아나지 않고
形如槁木動無緣	몸은 마른나무와 같아 움직일 길이 없어라
何曾少被窮經力	언제 조금이라도 경전 읽은 적 있으랴만
猶且欣看悟道篇	오히려 이제 기쁘게 오도편을 보노라
商略平生成底事	평생을 헤아려보니 무슨 일 이루었나
蒼茫佛海劇風煙	드넓은 불법의 바다에 풍연이 그득하네 ²⁸⁾

이 시는 명고가 본격적으로 출사하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명고가 32세 때인 1780년에 장령 윤필병(尹弼秉)과 지평 허담(許儻)이 역적 홍계능(洪啓能)과 친분이 있었던 서명응(徐命膺)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라고 건의하자, 정조가 그것은 역모가 드러나기 전의 일이라며 감싸주었다. 그리고, 서명응이 대사헌 이보행(李普行)에게 탄핵당하는 중에, 지평 한만유(韓晩裕)가 명고에 대해 ‘서명응이 아버지이고 홍계능이 스승’이라는 이유로 도배(徒配)에 처하도록 청하였다.²⁹⁾ 이 시는 명고가 제대로 정계에

28) 『明阜全集』 권1 〈志感〉.

진출하기도 전에 세상 풍파를 겪은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인다.

작품 전체적으로 실의에 찬 명고 서형수의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서를 탐독하며 불교에 침잠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 시는 교정고 삭제 표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불교적 색채가 짙은 것도 삭제하려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1~2구에서 명고는 세상일 때문에 할 말을 잃을 정도의 상황에서 선정(禪定)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선정(禪定)은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³⁰⁾ 수많은 번민으로 가득찬 인간사에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쉬는 공부인 선정을 택한 것이다.

3~4구에서는 실의에 찬 명고의 몸과 마음을 ‘냉회(冷灰)’와 ‘고목(槁木)’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세상에 나아가기도 전에 험난한 풍파를 겪어 낙담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말문이 막히는 현실을 당하여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불교에 의지하여 낙망의 정조를 극복하려는 심리를 담았다.

5~6구에서는 불경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담았다. 경전은 불경을, 오도편은 불교 서적이거나 선시(禪詩)를 가리킨다. 이 부분은 명고가 불경 및 불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지막 7~8구에서 명고는 제대로 이룬 일이 없이 낙담한 자신의 모습과 이와 대조되는 드넓은 ‘불해(佛海)’ 세상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 시작품은 서형수가 산속 집에서 향불을 피우고 최현(璀璨) 스님과 함께 불경을 강론하며 지은 것이다. 최현은 명고정거와 가까운 암자에 거처하였다고 하며, 명고의 작품에 네 차례 정도 직접 언급된다.

29) 〈明阜年譜〉 庚子條 참조.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http://encykorea.aks.ac.kr>).

我聞三教皆吾師 나는 들었네 유·불·도 삼교가 모두 내 스승으로
 心性精神同所治 심성과 정신을 다스림은 같다는 것을
 往往末流失其眞 말세엔 종종 참뜻을 잃고
 入主出奴紛相嗤4 제 논리만 고집하며 서로 비웃네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자기 논리만 옳다 하고 남의 논리는 무시한다.”라고 하였다.

佛猶近儒道則遠 불가는 그나마 유가에 가깝고 도가는 머니
 道蓋自私佛慈悲 도가는 일신만을 생각하고 불가는 자비를 숭상하기 때
 문이네

是以儒者喜談佛 이 때문에 유자들은 불설(佛說) 담론 좋아하여
 坡翁牧老一斑窺 파옹과 목로가 부분 부분 엿보았네

파옹(坡翁)은 소동파이고, 목로(牧老)는 전목재(錢牧齋)이다.

我亦粗窺佛家說 나 역시 어쭙잖게 불가의 설 엿보아
 得未曾有頻耽奇10 미증유의 일을 듣고 기이함에 자주 빠져드네

(중략)

離指識月無限妙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눈을 떼어 달을 알면 묘리가
 무한하니

頻伽聲中幾解頤 민가의 소리 속에 몇 번을 통쾌해했던가

민가(頻伽)는 묘음조(妙音鳥)이다.

不二門是一貫訣 불가의 ‘불이문’은 유가의 ‘일이관지(一以貫之)’ 요결이요
 視甚麼爲常目之 불가의 ‘무엇인지 관찰함’은 유가의 ‘늘상 주목함’이요

‘불이문’과 ‘무엇인지 관찰함’은 모두 불가의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

天雨曼陀石點頭 불가에서는 하늘에서 만다라화 흩뿌리고 돌이 고개 끄
 덕였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흩뿌렸다는 말은 불경에 나온다. 진(晉)나라 생공(生公)이 일천
 제(一闍提)에게도 법성(法性)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돌멩이를 모아 설법하자 돌멩이들

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일이 『전등록(傳燈錄)』에 나온다.

位育神功只如斯²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성장한다는 유가의 신묘한 효과도 오직 이 같은 것이네

(중략)

拔根利器除結鋒 병근(病根) 뽑는 칼끝을 예리하게 하여 번뇌를 제거할지니
心三口四言堪思 ‘세 가지 악한 마음’과 ‘네 가지 악한 말’을 생각해 볼 만하네

세 가지 악한 마음은 탐욕[貪]·성냄[瞋]·‘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견해[癡]’를 말하고, 네 가지 악한 말은 ‘사리에 맞지 않은 망녕된 말[妄言]’·‘교묘하게 꾸며대는 말[綺語]’·‘이간질하는 말[兩舌]’·‘남을 욕보이거나 헐뜯어 분노와 번뇌를 일으키는 말[惡口]’이다. 이는 모두 불경에 나온다.

儒演佛乘君休笑 그대여, 유자가 불경을 강론한다고 비웃지 마소
萬法到處差不謬⁴⁰ 모든 가르침이 지극한 경지에선 터럭만한 차이도 없거나³¹⁾

이 작품은 서형수가 불가(佛家)와 유가(儒家)의 공통점을 비교하며, 불가를 배척하는 유자(儒子)들의 인식을 성찰하는 내용이다. 평성 ‘지(支)’운 20운으로 이루어진 칠언고시이다. 1~4구에서 명고는 유·불·도 삼교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는 비슷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세인(世人)들은 근본의 정신을 잊고 각기 자신이 추종하는 사상과 논리만을 고집한다고 비판하였다. 한유(韓愈)가 <원도(原道)>에서 언급한 말을 자주로 인용하여, 명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였다.

5~10구에서 명고는 불교가 자비(慈悲)를 주요 이념으로 표방했기에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도가보다는 유가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소동파와 전겸익의 예를 들어서 유자들이 불교의 담론을 좋아하였고, 명고 자신

31) 『明阜全集』 권1 〈山齋燒香 與絢上人演佛乘〉.

도 불설(佛說)의 기이함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19~24구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 수 있는 묘리를 터득하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불경을 강론하는 최현 스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명고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불가의 ‘불이문(不二門)’은 평등하여 피차의 차이가 없는 진리인데, 이를 공자가 언급한 ‘일이관지(一以貫之)’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불가의 ‘무엇인지 관찰함[視甚麼]’은 말과 행동 및 지각의 주체를 철저히 인식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주희가 『대학』 전(傳) 1장을 풀이한 ‘늘상 눈길이 거기에 있다[常目在之]’는 것과 통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불가에서 성불(成佛)할 성품이 없는 사람인 일천제(一闡提)에게도 법성(法性)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일화가 『중용』 제1장의 ‘중(中)과 화(和)’를 철저히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장한다.’라는 말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37~40구에서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제거하고, 불경에 나오는 ‘세 가지 악한 마음’과 ‘네 가지 악한 말’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간사의 여러 갈등과 번민은 본인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언행 등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명고는 평생 유자(儒子)로서 인격 수양을 하면서도 불가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성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고는 향산(香山) 백거이가 한 “유가 철학으로 몸을 수양하고 불가 철학으로 마음을 다스린다.[以儒道飾其身 以佛道治其心]”라는 말을 인용하며, 다른 작품에서도 “유가로 몸을 수양하고 불가로 마음 다스렸으니, 향산 거사의 철학은 근원이 깊었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³²⁾

다음으로 명고의 친형인 서호수(徐浩修)의 정거(靜居)시에 차운한 작품을 살펴보겠다. 이 시에서도 불교적인 표현과 전거가 많이 사용되어서 명

32) 『明阜全集』 권2 〈山齋雜詩〉, “儒飾其身佛治心 香山居士道根深”

고의 불교적인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其一〉

言帶忘苕幾十年 추 말하면 초 잊은 것 몇십 년이런고

옛날 한 비구(比丘)가 근기(根機)가 우둔하고 기억력이 없었다. 부처가 그 비구에게 ‘초추(苕帚)’ 두 글자를 외우게 하였는데, 비구가 밥뭇으로 외워보았지만 ‘초’를 말하다 보면 ‘추’를 잊어버리고 ‘추’를 말하다 보면 ‘초’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비구는 매양 자책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초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크게 깨우쳐 걸림 없이 말을 잘하는 재주를 얻었다.

鈍根從古木人然 우둔한 근기 예로부터 목인 같았네

불가(佛家)의 말에 “우둔한 근기에게 설법하는 것은 마치 목인을 마주하고서 목인이 말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석녀가 아이 낳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陳翁閉戶終收放 진옹은 문 닫아걸고 마침내 흐트러진 마음 수습하고

진열(陳烈) 선생은 기억력이 매우 나빴다. 하루는 『맹자』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구한다.[求其放心]”라는 구절을 읽고서 홀연 깨우쳐 말하기를, “마음을 수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문을 닫아걸고 정좌(靜坐)하고서 100여 일 동안 책을 읽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을 수습하였는데, 이로부터 한 번 보면 잊지 않았다.

詹老下梯却透玄 침로는 계단 내려와 오묘한 경계 꿰뚫었네

침부민(詹阜民)은 누대 계단을 내려와 홀연 깨달았다.

〈其二〉

香燈貝葉送殘年 향불과 불경으로 여생 보내니

三種幻心漸豁然 세 가지 허망한 마음 점차 트이네

진공사(真空寺)의 노승(老僧)이 광자원(龐子元)에게 말하기를, “불가에는 이른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 수십 년 전의 영욕(榮辱)과 은연(恩怨)과 희비(喜悲)와 이합(離合)을 뒤미처 떠올리니 이것은 과거의 허망한 마음이요, 혹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치면 일의 처음과 끝을 두려워하여 수차례 망설이니 이것은 현재의 허망한 마음이요, 혹 훗날의 부귀를 바라거나 공명을 이루고 치사(致仕)하고서 전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거나 자손들이 등용되어 독서인(讀書人)의 가문을 이어 가기를 바라니 이는 미래의 허망한 마음입니다.”라고 하였다.

最是鷄鳴風雨夜 무엇보다 닭 울고 비바람 치는 밤
 怕他強力劫吾玄 남의 강압에 내 오묘한 경계 뺏길까 두려워라³³⁾

이 작품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명고가 파직된 이후 장단(長湍)에서 지내면서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其一〉에서는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명고 자신이 우둔한 자질을 지니고 있지만, 오묘한 경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1~2구에서는 교법(教法)을 깨우칠 자질인 근기(根機)가 부족한 명고 자신을 우매한 비구(比丘)와 목인(木人)에 빗대어서 표현하였다. ‘초추(苕帚)’는 풀이나 벗짚 등으로 만든 빗자루를 말한다.³⁴⁾ 불경을 처음 대할 때 명고 자신은 우매한 비구와 목인과 같은 상태였음을 알게 한다.

3~4구에서는 꾸준한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된 명고 자신의 모습을 송(宋)나라 때 인물인 진열(陳烈)과 첨부민(詹阜民)의 고사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진열은 기억력이 나빴지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노력한 결과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첨부민도 정좌하여 조존(操存) 공부에 힘쓴 지 반 개월에 어느 날 누대를 내려오다가 홀연 마음을 깨우쳤다고 한다.³⁵⁾

〈其二〉에서 명고는 불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면서도 다시 어지러운 세상 시비에 휩쓸릴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구에서는 항불과 불경으로 남은 생을 보내면서도 과거-현재-미래에 속박된 ‘허망한 마음[幻心]’을 지니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 마음은 일반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집착하고 번민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출사(出仕)하여 추구하는 성취욕이나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문의 번영

33) 『明阜全集』 권2 〈次伯氏靜居韻〉.

34) 『林間錄』 卷上 (작품해제 참조).

35) 『困知記』 卷下 (작품해제 참조).

등과 같은 일이 이에 해당한다.

3~4구에서는 험난한 인생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압에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명고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계명(鷄鳴)’과 ‘풍우(風雨)’는 『시경』 〈정풍(鄭風)〉 풍우(風雨)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며, 난세(亂世)를 의미한다.³⁶⁾ 명고는 모서(毛序)의 입장을 수용하여 ‘풍우’는 어지러운 세태로 ‘계명’은 절조를 변치 않는 군자로 파악하였다. 홀로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면서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해칠까 걱정하면서 시상(詩想)을 마무리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명고는 개인적인 서정을 드러낸 시작품에서 정치적인 부침에 시달리면서도 소신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성찰하였다. 그리고, 여러 고난 속에서 자부와 자탄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며, 유가적인 사상만을 맹신하지 않고 불가적인 이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을 고찰하였다. 명고는 자득(自得)과 개성을 중요시하며 실용적인 문학관을 지니면서도 고증적인 학문 자세를 지녔던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명고의 작품 중에 시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시문학의 인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에 나타난 인식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명고(明臯)에서의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명고는 서형수에게 양친(養親)의 추모의 공간이자 개인적인 사색의 장소였고, 어지러운

36) 『詩經』 〈鄭風〉 風雨.

환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배경으로 지은 시에서는 명고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시하거나, 서형수의 진솔한 마음과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자부와 자탄의 정서가 공존하여 드러난다. 명고 서형수의 시작품에는 실리를 탐하지 않는 문인이자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을 자탄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감정이 따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연작시 등에서는 이중적인 정서가 공존하며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유불회통적(儒佛會通的) 사유(思惟)를 지향한다. 명고 서형수는 정치적 좌절로 인해 환로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불가적인 이념을 수용하였다. 유가로 몸을 수양하고 불가로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여러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명고 서형수의 시문학에 나타난 특징은 자득(自得)과 개성을 중요시한 그의 문학관과 고증적인 학문 자세를 지녔던 태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응하여 진솔하게 정서를 표현하였고, 시적 상황과 내용을 자주(自註)를 통해 섬세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를 창작하였다. 시작품에 자주(自註)를 서술하는 방식은 시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내용을 섬세하게 기록하는 효과가 있고, 독자 입장에서는 시창작 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전고(典故)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게 한다.

명고 시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당대 다양한 사상을 수용했던 소론계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박학(博學)적인 학풍을 추구했던 달성 서씨의 가학(家學)과도 일정 부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를 통해 명고 서형수 시문학의 인식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명고전집』에 수록된 다른 장르의 작품 연구와, 동시대 다른 문인들과의 비교 연구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서형수, 『明阜全集』, (『國譯 明阜全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 참조.)
- 서명응, 『保晩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 (<http://people.aks.ac.kr>)
- _____,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http://encykorea.aks.ac.kr>)
- 김영주, 『조선후기 문학론 연구』, 이회, 2009, 1~342쪽.
- 김대중, 「서형수-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133, 진단학회, 2019, 125~165쪽.
- 윤선영, 「명고 서형수의 詩故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94쪽.
- 이승현, 「서형수의 『明阜全集』 詩稿를 통해 본 원텍스트 훼손」, 『고전번역연구』 7, 한국고전번역학회, 2016, 109~136쪽.
- 한민섭, 「명고 서형수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 『퇴계학연구』 20, 퇴계학연구소, 2006, 127~151쪽.

ABSTRACT

Research on Myunggo Seo Hyung Soo's Poem literature

Choi, Yun-jeong

This research is to study Myunggo Seo Hyung Soo's Poem literature (徐滢修, 1749~1824). Myunggo is evaluated as a scholar who had the academic attitude toward historical truth and the practical literay point of view, putting emphasis on self apprehension(自得) and individuality.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in his poem literature, focusing on Myunggo's epistemic feature.

We can characterize Myunggo's epistemic feature into following 3 aspects. The first aspect is his meditative attitude on Myunggo area(明阜). He exposes the sincerity and the meditative attitude on life in poem for Myunggo area(明阜), describing its beautiful senary. The second aspect is his emotion of self-respect and self-grieve. He shows his self-respect on becoming a writer and classical scholar who does not try for practical interests. On the same time he shows self-grieve in facing against the difficult situation in the real life. The third aspect is his way of thoughts penetrat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He suffered from the political frustration, stepped back from governmental post, but fostered and self-examined himself, accepting Buddhism. We can find that he fostered his body by Confucianism and he controled his mind by Buddhism in his several poems. In his poem, he shows his sincere emotion in facing against the difficult situation in the real life and finely presents poetic situation and contents by putting self-annotation. These aspects prove that he belonged to Soron who accepted the various ideas, and his academical tradition in some points was related to his family(from Dalseung Seo) studies which tried for eruditensess.

Key Words

Myunggo Seo Hyung Soo, Soron, Self-apprehension, Self-respect, Self-grieve, Penetration into Confucianism and Buddhism

논문투고일: 2023.06.30.

심사완료일: 2023.08.09.

게재확정일: 2023.08.11.